



정교회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에피파니오스 주교와
성 게르마노스 콘스탄티노플 총
대주교

부활 후 제 4주일 / 중풍 병자 주일

성 시몬 사도

제 3조, 조과복음 5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 1,2,3 응송 / 사도경 21~23
- 부활 찬양송 / 부활절 예식서 16
- 부활 입당송 ‘모두 다 모여’ / 부활절 예식서 38
- 제 3조 부활 찬양송 / 82, A213
- 성당 찬양송
- 부활 시기송 / 부활절 예식서 39
- 사도경 : 사도행전 9:32~42 / 253, 봉독서 53
- 복음경 : 요한 5:1~15 / 99, B 18
- 성모송 / 부활절 예식서 26
- 영성체송 / 부활절 예식서 42
- ‘우리가 참 빛을’ 대신 ‘부활 찬양송’ / 부활절 예식서 16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우리 교회에서 5월 12일 성 에피파니오스 콘스탄디아스의 주교와 성 게르마노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를 축일로 기념합니다. 이 두 분의 성인들은 올바른 믿음과 교회의 정의를 옹호하는데 온 생애를 헌신하였습니다. 교회의 교부들의 거룩한 저서들에서 성 에피파니오스의 저서들은 공식적인 자리를 가지고 있고, 성 게르마노스의 성가들도 성찬예배에서 특별히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는 그리스도교 문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교부들이 남긴 말씀들의 가치와 의미를 깊게 파고드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교회의 교부들의 거룩한 신학적, 시적 업적들은 그리스도교 문화의 산물입니다.

해야 한다' 보다 '하고 싶다'는 진심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이름이 잘 알려진 어느 만화가의 수필집에서 흥미로운 글을 읽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거부한 이유에 관해 썼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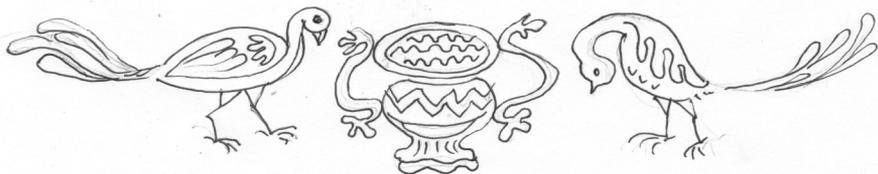
사실 그는 중학생 시절 내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주일날, 자신의 옷 중 가장 멋있다고 생각되는 '회색 운동복'을 입고서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른들한테 '어떻게 체육복 차림으로 교회에 왔냐?'며 무지 하게 혼이 났다는 겁니다. 그 사건은 어린 한 영혼에게 무지막지한 상처를 주었고, 한평생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게 했습니다. 어린 그는 운동복 차림으로 교회에 오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어른들의 잣대로 '버릇없고 무지한 아이'로 낙인이 찍혀버린 것이었죠. 만약 그에게 질책보다 경건한 신앙 모습에 대해 따뜻한 마음으로 알려줬다면 결과가 어찌 되었을까요? 그는 수필집에서 말했습니다. "내 판에는 가장 많이 신경을 쓴 옷이라 어린 마음에 상처를 심하게 받았다. 믿음에서 형식이 먼저인지 마음이 먼저인지가 궁금해졌고 회의감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 이후로 교회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섬뜩한 이야기입니까? 내가 무심코 했던 사소한 행동 하나가, 혹은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을 평생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 말이죠. 맹목적인 고정관념과 형식적인 신앙관이 편협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깊이 들어 갈수록 마음의 폭이 넓어지지만, 형식적인 신앙의 경우는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이 왜곡될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삼십팔 년 동안 앓던 중풍 병자를 고쳐주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신 주님께서 "일어나 요를 걷어 들고 걸어가거라"(요한5,8)라고 하셨습니다. 마침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오늘은 안식일 이니까 요를 들고 가서는 안 된다'고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을 온전한 삶 한 번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가련했던 인생이 이제 주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았는데, 같이 기뻐하지는 못할망정 왜 하필이면 안식일이냐고 시비를 걸다니 이게 참된 걸까요? 그러나 이런 것은 형식적인 신앙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그들의 시야가 좁아져 있기에 보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마음 씀씀이도 한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형식적이고 사무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하고 싶다'는 말로 표시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헌신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마음을 늘 새롭게 변화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형식적이고 안주하는 신앙에서 탈피하여 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

보편적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들 중에서 살아날 우리 자신의 부활을 보증해준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부활할 것이다. 선한이든 악한이든, 의인이든 의인이 아니든,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상관없이...

이런 보편적인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것이다. 세례를 받고서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신앙을 지켜나간 이들과 세례는 받았으나 나중에 그리스도를 부정하거나 저버린 이들 모두가 부활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지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님과 함께 살아온 사람은 영원히 하느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말 그대로 중력에 이끌리듯이 하느님에게로 끌려갈 것인데, 그것은 자신들의 삶에서 언제나 하느님을 중심에 두고 살았기 때문이다. 하느님 없이 산 사람들은 하느님으로부터 도망치듯이 떨어져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부르는 자신들만의 장소로 갈 것인데, 그곳은 바로 하느님 없이 자신의 자아가 지배하는 곳이다. 그런 사람들은 삶 전체를 통해 하느님이 계신 곳에서는 불편함을 느끼도록 길들여진 상태로 추락하고야 말았다.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그런 이들은 마지막 날 하느님이 나타나시면 하느님이 계신 곳에서 도망치고야 말 것이다. C. S. 루이스 (C. S. Lewis, 1898-1963: 영국의 작가, 신학자)가 언젠가 말한 대로, “만일 죄인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면, 그는 그곳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더 머무르지 못하고 서둘러 떠나고야 말 것이다. 천국은 그에게 지옥과 같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을 사랑도, 하느님도 아닌 죄와 이기심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이다.”

분명코 천국은 잘 준비한 사람을 위해 준비된 장소이다.

아타나시아



소식

대교구

→ 계속 기도합니다.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좀 더 진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토요일 대만과와 주일 성찬예배를 생중계할 것입니다. 신자분들께서는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서 빠른 시일 내에 성당에서 서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매일 밤 10시에 드리는 기도에도 전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난 4월 강풍으로 성 니콜라스 대성당의 지붕 한 부분의 동판부분 한쪽이 떨어져 나가고, 기와가 내려앉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사랑의 오찬과 성서 공부 등 여러 행사를 함께 하는 지하 선교회관이 건물 상수도관의 노후로 누수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어서 신자분들이 안심하고 성당에 나올 수 있다고 해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선교회관에서 사랑의 오찬을 비롯하여 어떤 행사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당 지붕도 앞으로 올 장마 등, 비가 내리면 성당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성당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할 수 있을지, 가장 좋은 방법을 업자들을 만나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사들은 성당의 재정에 비례해 많은 지출이 필요합니다. 신자분들의 많은 기도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인천 성 바울로 성당

→ 영원히 기억하시리이다.

병환 중에 투병생활을 하셨던 세리핌 김선률 교우께서 지난 4월 30일 목요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의 가브리엘 김정선 교우의 아버지이신 교우께서는 정교인이 되시고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 근처로 집을 옮겨서 수도원에 다니시면서 배우자이신 엘리자벳 권정숙 교우와 함께 매일 예배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수도원에서 봉독자 안수를 받았고, 특히, 수도원의 크고 작은 많은 일을 직접 봉사해주시면서 신앙생활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말년엔 인천 성 바울로 성당근처로 거처를 옮기셔서 그곳에서 신앙생활과 교회의 봉사활동을 계속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의 영혼을 안식케 하시고 성인들의 무리에 들게 하시길 기원합니다. 영원히 기억하시리이다!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

→ 견진을 축하합니다.

지난 5월 3일 주일에 Sarah Lucille Hardy 교우가 견진성사를 통해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정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길 기원합니다.

주간예식

5월 13일(수) 오순절 중앙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및 성찬예배

